

전북 소비자물가 3.6% ↑ ... 체감물가 부담 지속

지난해 동기 대비... 생활물가 4.3% 상승 · 교통 · 공업제품 오름세 두드러져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생활물가가 4% 이상 상승한 데다 교통비와 공업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도민들의 체감물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58(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전년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다. 전년동월 기준 상승률은 지난 5월 3.5%에서 0.1%포인트

트 높아졌다.

상품 가격은 전월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했다. 이 가운데 공업제품은 전년동월 대비 5.0%, 농축수산물은 3.2% 각각 올랐으며 전기·가스·수도 0.3%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2.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8%, 공공서비스는 1.8%, 집세는 0.5%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았지만 전년동월 대비 4.3% 상승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부담은 여

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식품 이외 품목은 5.5% 상승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지난해보다 0.7% 하락한 반면 신선어개는 1.9%, 신선과일은 0.8%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교통 부문이 11.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기타 상품·서비스(5.3%), 오락·문화(4.7%), 교육(3.9%), 주택·수도·전기·연료와 음

식·숙박(각 2.5%), 식료품·비주류음료(1.9%) 등이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휘발유(23.8%), 경유(34.7%), 등유(24.2%), 보험서비스료(13.4%), 쌀(15.7%), 달걀(14.8%), 국산 쇠고기(5.6%)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반면 배(-22.0%), 양파(-18.7%), 배추(-16.7%), 세탁세제(-11.6%), 생리대(-12.7%) 등은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0.9% 상승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와 보건, 음식·숙박, 교육은 각각 0.1% 상승했다. 교통(-0.2%), 오락·문화(-0.3%), 통신(-0.1%)은 소폭 하락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은 22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제28회 명품 전주복숭아축제'를 개최했다.

명품 전주복숭아축제 '성황'

전주농협, 직거래 행사로 복숭아 3000박스 판매

전주농협이 개최한 제28회 명품 전주복숭아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2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제28회 명품 전주복숭아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훈 전주시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이창완 전북농협 부본부장, 김대호 농협 전주시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축제를 축하했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명품 전주복숭아의 맛과 품질을 즐겼다.

축제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복숭아 시식과 복숭아 화채 만들기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명품 전주복숭아 직거래 판매도 함께 열렸다. 행사 당일 약 3천 박스의 복숭아가 판매돼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 전주시지부와 함께 '농심천심' 운동 확산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오상근 기자

'취업설명회 결합' 중소기업 인식 개선 나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기: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 in 전라' 전주서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개선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취업설명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취업 지원 행사를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중소기업 바로알기: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 in 전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운영해 온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에 취업설명회를 접목한 첫 사례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취업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취업 전문 유튜브 채널 '면접왕 이형'으로 알려진 이준희(썬)엘라이브커뮤니티 대표가 특강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치와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열린 현장 토크콘서트에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강사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참여해 취업 성공 사례와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눴다.

이번 페스타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과 취업설명회를 연계해 청년들의 인식 개선부터 구직 활동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도서 지원, 온라인 강의 수강권 제공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교육과 취업



자원의 연계 효과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8개 도 중 상승률 1위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오름폭을 키우며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1주(7월 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 서울은 0.30%, 지방은 0.01% 각각 상승했다.

전북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0.05%), 전남(0.04%), 경남(0.03%) 등이 상승했으며, 충남(-0.05%)과 제주(-0.05%)는 하락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덕진구는 인후동1가와 송천동2가 일대 대단지를 중심으로 0.19% 상

승했고, 완산구도 평화동1가와 태평동을 중심으로 0.14% 올랐다.

반면 남원시는 0.02% 상승에 그쳤고, 김제시(-0.02%), 군산시(-0.03%), 정읍시(-0.03%), 익산시(-0.07%)는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7%에서 이번 주 0.3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역시 화성 동탄구(1.29%), 수원 영통구(1.19%) 등을 중심으로 0.23%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20%, 서울은 0.31%, 지방은 0.04% 각각 올랐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법률·세무 상담 지원 '기업 민원 해소의 날' 운영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세무 분야 전문가 상담을 마련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2일 전주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민원 해소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7개 분야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제도적 어려움을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상담에서는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법률과 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이 진행됐다. 유길중 변호사



와 심상동 세무사가 상담에 참여해 법적 분쟁과 세무 행정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글로벌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추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 신규 지정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글로벌강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규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강소+ 지역자율프로그램'의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신규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올해 신규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자율프로그램 기업별 지원한도가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강소기업과 1천만 달러 이상인 강소+기

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정하는 지역 대표 수출기업 육성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올해 신규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5개사인 비나텍(주), 다산기공(주), 에스시디디(주), (주)다시, (주)지노모터스다. 이들 기업은 기존 1차 선정금액을 제외한 잔여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자율프로그램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공정개선 및 디지털전환, ESG·지속가능경영, 글로벌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